



## 울고 웃는... 쇠에 소리를 불어넣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3>

### 제10호 방자유기장 김문익씨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수공예품 유기(鑪器). 청동기시대부터 제작된 유기는 자연적으로 출토된 광물질이 아닌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 니켈 등을 혼합해 만든 합금물체로 '놋쇠'라고도 불린다.

놋쇠중 가장 높은 기술이 필요한 '방자유기'는 독성이 없어 식기로 제작되었으며, 두드림의 미학이라 불릴만큼 다양한 타악기를 만들었다.

합금기술과 단조기술을 결합시킨 방자유기의 전통기술을 인내와 노력으로 이어온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방자유기장 김문익씨(61).

군포시 대야미동 122번지에 위치한 김씨의 일터 '국일공예사'는 50여년 유기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150여평의 공방에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오래돼 보이는 각종 기계와 푸른 기운의 불기운이 솟는 소형 용광로, 담금질에 더욱 견고해진 중간단계의 방자유기가 즐비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다.

유기는 만드는 방식에 따라 방자(일명 방자·方字)와 주물(鑄物), 반방자(半方字)로 크게 나뉘는데 육상 원반경기에 사용되는 원반 크기의 합금놋쇠를 일컬어 '방자'라고 한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유기는 시대에 따라 흥망성쇠를 거쳤다.

신라시대에 이미 유기를 제작하던 철유전(鐵鑪典)이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상류층의 식기와 각종 불교공예품으로 사용된 유기를 제작했다.

당시 유기는 품질이 우수해 신라동, 고려동으로 불리며 외국에 수출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유장(鑪匠)이 경공장과 외공장에 있었고 후에는 점차 늘어나 전국 각지에서 유기가 제작돼 일상용기로 사용, 대중화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군사물자를 만들기 위해 유기를 수거했으며, 이때 일반인들의 수요가 끊기자 유기 제작기술이 현저히 퇴보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놋그릇 파동과 스텐리스, 알루미늄 보급에 따라 수요가 급감했으며 5.16이후 유원지 놀이 금지와 미신타파 정책에 따라 징과 쟁과리의 판매가 덩달아 떨어지는 수난을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사의 급물결 속에서도 김문익씨의 고집스런 집념은 방자유기의 전통기법을 고수하고 있다.

경남 함양 출신인 김씨는 1956년 13살 때 최두진 공방에 입문해 13년간 납땜의 농악기 제작기술을 배웠으며, 1967년 이봉주씨(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기능보유자)의 안양 진유공예사에서 17년간 평북 정주의 납청방자의 특기인 양대(큰 놋그릇) 기법을 전수받았다.

김문익씨는 안동 김씨로 집안 어른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당시만해도 유기기술은 천한 사람들이 배우는 기술이라며 어른들이 극구 말렸어요"

집안의 반대도 반대지만 당시 유기제품의 판매가 좋아 퍼블리가 아니고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그때는 하루 일하면 한 가족이 한 달을 먹고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벌이가 좋았지요" 농사일보다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 김씨는 고모부의 소개로 유기기술을 배

우게 됐다.

"처음 작업할 때는 망치도 못잡게 했죠. 잔심부름이나 청소할 하며 일을 배웠어요"

도제식 교육이라 잔일부터 시작했다. 일단 기술을 배우자고 시작했지만 만만치 않았다. 하루 5가마의 목탁(숯)을 태우면서 숯가루를 마시며 작업했다. 용광로의 불꽃을 살피기 쉬운 저녁과 새벽이 주된 작업시간이었으니 육체적 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힘들었지만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서 쉽게 포기하지 못했지요. 힘이 있다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일을 해야죠"

방자유기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혼자 제작할 수 없고 대개 6명이 1조를 이룬다. 쇠물을 주조할 때 붓는 안성의 주물유기와 달리 방자유기는 불에 달궈진 쇠덩어리를 일일이 매(망치)로 치고 두들겨 형태를 잡아간다.

먼저 리더격인 원대장이 집계를 잡아 고정시키고, 힘센 장정 3명이 반강아 방자를 때린다. 한쪽에 선 1천500℃의 고온을 유지하기 위해 풀무질을 하고, 광택을 내기 위해 다듬는 가질 작업을 거친다.

이런 작업을 거친 방자유기는 식기류를 비롯해 징이나 쟁과리, 바라 등의 타악기와 무구(巫具), 사찰용품 등 100여 종류의 유기제품을 만들어낸다.

"최소한 20년은 배워야 자신이 만들고 있는 악기의 소리를 짐작해 낼 수 있다"는 김씨는 구리와 주석의 비율을 달리 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조금씩 노하우를 터득해 왔다.

방자유기는 구리와 주석을 72대 28 비율로 섞은 합금으로, 비율이 다르거나 다른 성분이 조금만 섞여도 터져버리는 특성이 있다.

방자유기를 만들 때 구리와 주석 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합금은 금과 은. 금이 악기에 섞이면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내며 은이 섞이면 높은 소리를 낸다.

주문생산을 하는 김씨는 시대에 따라 주문품목이나 판매수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1980년대는 유기의 전성시대였다. 국악의 붐이 일었고, 88아시아계일과 88올림픽 등 대형 행사가 열리면서 징이나 쟁과리 등 악기류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김씨는 세계속에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김덕



또한 유치원생이나 초·중등학생 단체관광객들에게 살아있는 전통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

황금빛 찬란한 방자유기와 함께 전시할 한편에는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지름 50cm 이상의 쇠북이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김씨가 창의력을 발휘해 만든 것.

유기 전시관은 1년전에 준공했는데 주변경관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정문에는 오래 전 설치됐음을 알리기라도 하듯 방자유기의 내력이 적힌 낡은 게시판이 거슬린다.

47번 국도와 인접해 있지만 공방 표지판도 없고 들어오는 길은 승용차 1대가 겨우 들어올 정도로 좁은 콘크리트 길이다. 군포시에 하나 밖에 없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및 관광객을 위한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아쉽기 생각했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김씨의 손길이 바빠졌다. 절집에서 과일이나, 쌀 등을 담은 갖가지 그릇 주문이 들어와 더욱 바빠졌다. 공방 곳곳에 재봉은 방자유기들을 보니 전통문화의 맥이 아직도 살아 움직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김씨에게는 방자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내달 4일부터 한국민속촌에서는 중국, 일본과 나란히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공예작품이 전시되고, 같은 달 코엑스전시장을 비롯해 9월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분주한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 청동기 시대부터 제작...가장 오래된 전통수공예 '유기'

### 50년 유기 인생... "적어도 20년 배워야 악기소리 짐작해"

### 전통기법 고수한 식기·타악기·사찰용품 100여종 생산

특히 방자유기의 기술은 농악에 사용되는 악기에서 두드러진다. 아무런 형태도 없는 쇠덩어리를 오직 망치로 두들겨 형태를 만들고 형이 잡히면 고망치라 불리는 작은 망치로 두드리며 울음 잡는다. 악기는 적정한 소리를 민감하게 우러내는 과정 즉, 울음계기(또는 소리잡기)의 공정이 방자의 핵심 기술을 거친다.

"대보름날 농촌에서 치는 징이 다르고, 무속용이라도 산에서 사용하는 것과 바다에서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또한 지방마다 소리가 제각기 달라서 소리잡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죠"

수 사물놀이패에 징과 쟁과리를 제공한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

최근에는 고급 한식음식집에서 냉면기 등 그릇류의 수요가 있는 편. 그러나 예전처럼 놋요강이나 놋대야, 제기류 등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김씨는 안산시의 경계인 군포시 대야미동에 공방을 차려놓고 이춘복씨 등 전수자 10명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공방 바로 옆에는 군포시가 만든 30평 규모의 전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이곳에서 그의 작품이 일반에 전시, 판매될 예정이다.